

CHAPTER 1. 대입의 핵심을 파악하라

1) 나는 어떻게 대학가야 할까?

입시 전략은 단순히 고3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1 학생들도, 빠르면 중학생들도 차근차근 준비하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대입 전략 수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시의 기본부터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 고3 생활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한 해 동안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해 놓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언제 어떤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지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나의 장점을 잘 발휘하려면 나는 어떤 모집 전형에 집중해야 하는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고교 1학년 때부터 나는 학교 생활에 집중하며 수시모집을 준비할지, 아니면 국영수 공부를 중심으로 수능을 노려 공부할지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대입일정, 새겨두고 움직여라

입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대입의 주요 일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일정은 무엇인지 <표1>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주요 일정

날짜	주요 일정
3월 초	학력평가(교육청 실시)
4월 초	학력평가(교육청 실시)
6월 초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7월 초	학력평가(교육청 실시)
9월 초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중순	수시모집 원서접수
10월 중순	학력평가(교육청 실시)
11월 중순	수능 실시
~12월 초	수시모집 대학별 논술고사 및 면접 실시
12월 초	수능 성적 통지일
12월 중순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12월 말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12월 말~1월 초	정시모집 원서접수
1월 말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2월 중순	정시모집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 위 표는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 등 최근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므로 추후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3월 학력평가는 전국의 고3 재학생들이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점검하고 수험생활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고3 첫 모의고사인 만큼 이 시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수험생이 많지요. 일부는 "3월 학력평가 성적이 결국 수능 성적으로 이어진다"며 사활을 걸기도 합니다.

3월 학력평가 성적을 자신의 학생부 준비와 비교하여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즉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1, 2학년때의 내신 성적이 훌륭한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 학교 내신 시험에 집중해 수시모집에 대비하고, 반대로 학교 내신 성적은 좋지 않은데 3월 평가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이라면 수능 학습에 치중해 정시모집을 대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지요. 이는 4, 7월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실시되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수능과 매우 유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이 희망대학의 수시모집

한권으로 끝장내는 대입전략(월 알아야 대학가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진단해봐야합니다. 이후 여름방학 때는 수시모집 서류 준비와 논술 및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에는 서서히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만 하고, 9월 이후부터는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 학습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에 진행됩니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말부터 12월초까지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등 가 진행되지요. 4년제 대학 수시모집은 1인당 총 6번의 지원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특수대학(사관학교, 경찰대, KAIST, GIST, DGIST, UNIST)은 6번의 지원기회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해 수시모집에 지원하길 바랍니다.

정시모집은 수시모집과 달리 군별로 1개씩 총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가군, 연세대와 고려대는 나군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시모집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동시 지원할 수 있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정시모집은 수시모집에 비해 더 세부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모의고사 성적!

9월에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지원을 할 때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시모집에서도 합격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물론 수시모집은 주로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시모집에서 합격이 가능한 대학보다는 좀 더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수시모집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할 때는 6장의 지원 카드 중 2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성적에 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불리하다면 3장 정도는

하향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수시모집 6장 카드 중 어떤 전형에 상향지원하고, 어떤 전형에 하향 지원을 해야 할까요? 보통 수험생들은 논술전형에 상향 지원을, 학생부위주전형에 적정 및 하향 지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해마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쟁률을 크게 압도하고 있는데, 논술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하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선불리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면 학생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절 대적인 논술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하지요.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논술전형의 경우 다소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차후 자신의 수능 성적 상승 정도까지 고려 해서 이 같은 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시모집은 정시모집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향 지원이나 하향 지원 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명확히 진단하는 한편, 1년 동안 자신의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입시 대세, 수시모집!

대학 입시에서의 수시의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모집으로 신입생 56.7%(21만4481명)를 선발하고 정시모집으로 신입생 43.3%(16만3996명)를 선발했습니다. 전체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했지요. 그러나 2011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선발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로 60%를 돌파합니다.

II2 최근 4년간 수시, 정시 선발 비율 변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수시모집	모집인원	24만1093명	24만3748명	24만8669명	25만9673명
	비율	64%	66.7%	69.9%	73.7%
정시모집	모집인원	13만5774명	12만1561명	10만7076명	9만2652명
	비율	36%	33.3%	30.1%	26.3%
합계		37만6867명	36만5309명	35만5745명	35만2325명

※ 대학교별 발표 기준

<표2> 를 보면 알 수 있듯 2015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이 64%를 차지 했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수시모집 비중이 69.9%까지 올랐지요. 2018학 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은 70%가 넘었습니다. 정시모집으로 대학 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2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년 전인 2009학년도 대입과 비교하면 수시모집의 비중이 무려 17%포인트나 올랐 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정시모집에 '올인'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보다는 학생부 중심 의 수시모집을 목표로 입시전략을 세웁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 성적만 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동아리활동·독서 활동·봉사 활동 등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면접과 논술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한편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하지요. 수험생은 그야말로 숨 쉴 시간 도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대입에서도 수시모집의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요 10개 대학 △서울권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 국공립 대학 △지방 사립대학 등 모든 구분단위에서 수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험생들은 이런 변화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험생활에 돌입하기 전에 탄탄하고 치밀한 입시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앞에 서도 언급했지만, 입시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1년 동안의 학습계획 및 입시준비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시 중심형이라면 9월에 예정 되어 있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위해 여름방학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비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평상시에는 내신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 채로운 교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학생부를 탄탄히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시모집 중심형이라면 모의평가에 집중하며 국영수 영역 별 학습을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부 성적만 잘 관리하면 될까 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더라도 수능 학습을 등한시해선 안되는 이유인 것이지요. 수능 학습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 지원자가 많을 경우, 그만큼의 정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됩니다.

만약 수시모집에서 목표대학 진학에 실패했더라도 정시모집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 관리가 필수인 것입니다. 결국 수시든 정시든 수능 실력을 탄탄히 하고, 수시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같은 성적으로도 입시전략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 최종 합격하는 대학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최근의 대입에서 주요대학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 변화를 분석해 현재까지 내가 받은 학생부 성적으로는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목표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